



: 2026 2 8 8:17



홍가슴호랑하늘소 / *Xylotrechus rufilius* Bates, 1884

구분	설명
생물분류	곤충
속국명	호랑하늘소속
과국명	하늘소과
과명	Cerambycidae
일반특징	<p>앞가슴등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며, 일부는 짙게 나타난다. 등판의 뒷부분은 검은색이고, 뒤쪽으로 노란색 부드러운 털이 모여 있다. 딱지날개는 검은색이다. 딱지날개가 시작되는 부분과 끝 부분에 흰색의 부드러운 털로 이루어진 띠가 가늘고 길게 나 있다. 딱지날개 끝에는 바깥을 향해 있는 작은 돌기가 있다. 이마 가운데에는 V모양으로 솟아 오른 세로선이 있다. 암컷은 뒷다리의 넓적다리마디가 딱지날개 끝에 닿지만, 암컷은 그렇지 않다.</p> <p>번데기의 머리는 정수리에서 윤기가 나며 뻣뻣한 털이 없다. 이마는 튀어나와 있지만 양쪽 가장자리는 납작하다. 앞가슴등판은 볼록하고 옆부분은 둥글며, 뒤쪽 가장자리에는 가로로 나 있는 홈이 없다. 반면, 배의 등판에는 가운데 세로 홈이 있으며, 뒤쪽 절반에는 뾰족하고 억센 털들이 퍼져 있다.</p> <p>애벌레의 몸은 하얀색이다. 머리는 앞으로 갈수록 좁고 둥근 모양이며, 앞가슴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. 이마 구분선은 보이지 않는다.</p> <p>더듬이는 길고, 첫 번째 마디는 끝으로 갈수록 좁아진다. 이마방패는 사다리꼴이고 시작되는 부분이 매우 넓다. 윗입술은 작다. 앞가슴등판은 볼록하며 너비가 길이의 2배이다. 배는 끝으로 갈수록 서서히 좁아진다. 알은 흰색이고 길쭉하며 양 끝이 둥글다.</p> <p>낙엽수가 모인 숲에 서식한다. 러시아에서는 성충이 7월에 나타난다. 암컷은 먹이 식물의 나무 껍질 틈에 알을 낳으며 성충이 될 때까지 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잘린 광엽수에 모여들며, 특히 참나무가 쌓인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. 애벌레의 모습으로 겨울을 난다.</p>